

탄소시장 동향 브리프

2026년 8월 1주

PACM 재생에너지 크레딧, 문은 열렸지만 관문 넘어야

- 추가성 3중 심사로 '양보다 질'로 선별
 - 등록부 체계 안정화가 실질적 크레딧 유통
개시 시점 좌우
-

PACM 재생에너지 크레딧, 문은 열렸지만 관문 넘어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제6.4조 감독기구가 PACM 최초의 재생에너지 방법론을 승인했다. 이로써 매립가스·이산화질소에 이어 세 번째 섹터를 확보됐지만, 까다로운 추가성 요건으로 초기 크레딧 공급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 탄소시장, 재생에너지 방법론 첫발

감독기구는 지난 7월 30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전력계통에 연계된 태양광·풍력·수력·지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탄소크레딧 산정 방법론을 승인했다. PACM*에 적용되는 최초재생에너지 전용 방법론으로, 크레딧 발행 대상은 신규 건설된 발전소가 생산한 순전력을 전력계통에 보내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반면 농지·산림에 설치한 태양광,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의 연료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사업 등은 제외된다.

크레딧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체되는 기존 전력망의 화석연료 배출량 기준으로 감축량을 산정하고, 여기서 자체 배출량과 누출량을 차감한 뒤 MRV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더불어 ▲법적으로 의무화된 조치가 아닐 것 ▲IRR*·NPV*기준으로 경제성이 낮아 탄소크레딧 없이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것 ▲현지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관행일 것이라는 3중 추가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등록부 운영 절차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크레딧 발급·보유·이전·추적을 담당하는 등록부에 대해 관리자의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고, 계정별 신원확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됐다. 아울러 계정의 정지·복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감독기구가 갖도록 명확히 했다.

용어 해설

***PACM** : 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

***NPV** : 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시사점

추가성 입증, 크레딧 공급량과 품질을 동시에 좌우

이번 방법론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사실만으로 크레딧을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앞서 언급된 3중 추가성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발급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구조다. 각 요건마다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방법론 승인 직후 크레딧이 대량으로 공급 되기보다는 사업별 심사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단가가 이미 화석연료 발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진 시장이 많아, 전력 판매 수익만으로 사업성이 나온다는 평가를 받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크레딧 없이는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투자 추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 3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크레딧은 법적·재무적·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 검증을 거쳤다는 뜻이어서, 형식적 요건 충족이 아닌 실질적 감축 기여를 인정받는 크레딧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등록부 투명성·체계적 계정 관리가 크레딧 유통 신뢰도의 실질적 기반

이번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방법론 승인과 함께 등록부 운영 절차도 보완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관리자의 분기별 보고 의무화와 계정별 신원확인 결과 통지 절차는 계정 심사·운영 과정의 정기적 공개를 제도화해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계정의 정지·복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감독기구로 일원화한 점도, 계정이 임의로 장기 정지되거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지는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방법론이라도 등록부 체계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중 계상이나 발급 지연 등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등록부 개정이 향후 PACM 재생에너지 크레딧 시장이 실질적으로 열리는 시점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관련 기사 및 참고자료

- 1) 송준호, "유엔 탄소시장, 재생에너지로 확장...태양광·풍력도 크레딧 발급 길 열려"